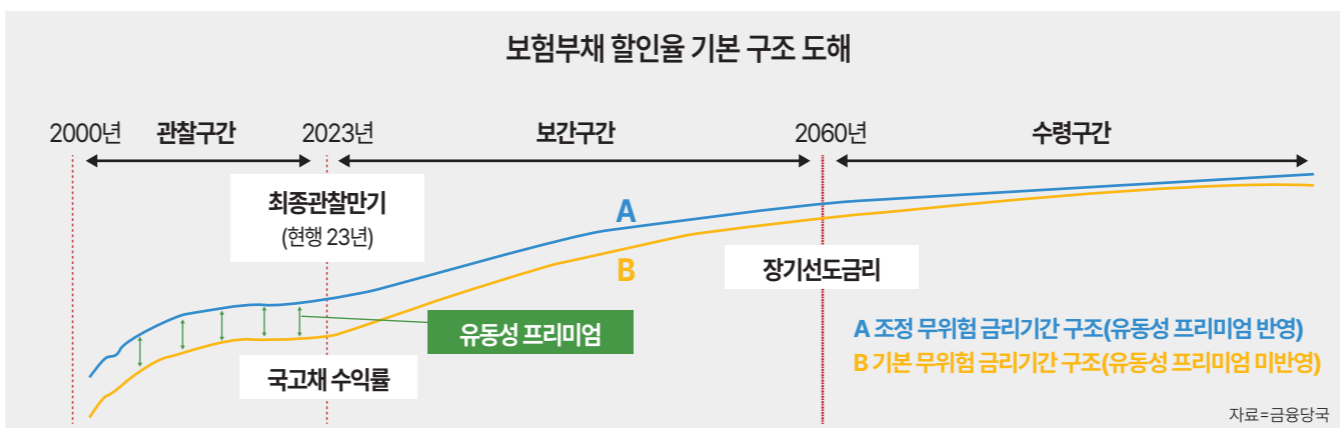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자본비율 변동성 줄인다

내년부터 10년간 국고채 금리 최종관찰만기 23년→30년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듀레이션 갭... 부채 투트랙 관리 보험사별 현황·관리행태 점검... 악화 땐 개선 조치 압박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듀레이션갭 규제가 도입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간의 듀레이션 차이로서 금리 하락시에는 갭이 커지고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국고채 금리의 최종관찰만기 '23년'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30년'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새 회계·자본제도(IFRS17-K-ICS)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듀레이션갭 관리로 금리민감도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설계다. 이번 정책은 2023년 IFRS17-K-ICS(키

스) 도입 이후 시장금리 하락과 장단기 역전,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확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전성 압박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즉시 적용' 시 키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을 고려해 '10년 로드맵'으로 구상됐다. 금융당국은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 2030년은 25년,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30년을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즉시 30년을 적용한다면 키스 비율이 평균 19.3% 하락할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장기채 수요를 키워 장단기 금리역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또 유령연합



(EU)이 2027년부터 20년과 30년 사이를 보장하는 외삽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만들 때 시장금리를 그대로 관찰해 쓸 수 있는 마지막 만기로 관찰구간을 늘릴수록 외삽(모형 의존)구간이 줄어들어 오차가 감소한다. 다만 장기 구간의 실제 시장금리가 외삽으로 가정한 장기선도금리보다

낮을 때는 할인율이 더 내려가 부채가 커지고 키스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충격을 완화하려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최종관찰만기 10년 로드맵 구상과 함께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해 보험부채는 '투트랙'으로 관리된다. 듀레이션갭 규제는 정의·공사·평가의 3단계로 정비된다. 내년부터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의 정의를 감독규정에 도입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두 지표를 추가해 시장 규율을 작동시킨다. 2027년부터는 경영실

태평가의 금리리스크 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등급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월 말·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악화 회사에는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필요시 C레벨 간담회까지 열어 선제적 관리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 보험업권은 장기보장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대응해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지만 회사별 편차가 큰 만큼 금리 추세변동에 대한 내성 제고

가 정책 목표다. 할인율 산출 체계의 기본도 재확인됐다. 관할구간(0년~최종관찰만기)은 국고채 무위험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사용하고 추정구간(최종관찰만기 이후~60년)은 장기선도금리와 계량모형으로 보간한다. IFRS17 도입 초기(2022년 말 전환시점) 높은 시장금리로 자본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었고, 2023년 하반기 이후 금리 하락과 보험사의 ALM 수요로 장기금리에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할인율 하락이 부채를 증가시키고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연쇄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10년 로드맵'은 이러한 경로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듀레이션갭 관리로 금리민감도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설계다.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적용되고 듀레이션 관련 정의·공시는 내년, 경영평가 반영은 2027년 시행된다. 취యా사 밀착점검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가동된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취업 후에도 못갚는 학자금대출... 5년 새 2.2배

취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상환을 유예한 학자금대출 금액은 지난해 242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2배 늘었다.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학자금대출 상환을 미룬 금액은 2024년 기준 242억 원으로 2020년의 110억 원보다 131억 원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 역시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 청년들의 '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자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으며,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

2020~25년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년	1091	1398	6871	9693	7962	1만1091
2021년	1075	1548	6793	9987	7868	1만1535
2022년	1217	1809	8261	1만2999	9478	1만4808
2023년	1977	3377	1만453	1만6785	1만2430	2만162
2024년	2369	4244	1만2158	1만9972	1만4527	2만4216

자료=국세청·정일영 의원실

지난해 상환유예 242억... 대상자도 76% 늘어 실직·폐업 등 고용 불안정 때문...부채 악순환

도 상황을 하지 못하는 청년도 급증했다. 미상환(체납) 인원은 2020년 3만 6000명에서 2024년 5만4000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은 427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313억 원(약 1.7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부채 악

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외환시장 불안·집값 상승세 영향... 기준금리 동결 전망

10·16 부동산 관리대책 공조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예상

금융업계는 23일 금융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금융업계는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유로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 동결에 이어 한은이 10월에도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한은이 정부가 16일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관리대책에 공조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만장일치 동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에 신중할 입장



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수 심리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경기 호조, 주식시장 강세 지속 등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인하 시점은 내년 1분기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 정책을 고려할 때 한은이 11월까지 정책 공조 차원에서 동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형주 IBK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기준금리의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하며 한은이 시장 주체들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선 대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관세) 분쟁이 재점화하면서 대외 상황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23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나 단행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추가 인하 시기는 11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국고금리의 방향성은 정제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25억 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治人治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